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내용 공개 - [1차] 무용 분야 차세대 그룹 -

□ 회의 개요

- 회의명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 일 시 : 2019.1.22.(화) 16:00~18:00
- 장 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연습실2
- 참석자 : 총 12인(예술인 패널 5인, 예술위 7인)

구분	성명	현직
무용 분야 차세대 예술인 패널 5인 (가나다순)	김보라	아트프로젝트 보라 예술감독
	김재승	마홀라컴퍼니 대표
	이동하	이동하댄스프로젝트 대표
	임정하	Dab Dance Project 대표
	최소빈	최소빈 발레단 단장
내부 7인	조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분야 위원, 장계환 극장운영부 부장 외 극장운영부 직원 5명	

□ 주요 논의 사항

-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 극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 현장 논의 내용

※ 발원자 표기는 편의상 ‘패널(예술인 패널)’과 ‘진행자&위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구분합니다.

진행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일반현황 소개. 2018-19년도 사업예산 및 기획 사업, 대관 현황, 극장별 공연 실적 등 공유 후 논의 주제 설명

[안건1]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진행자: 극장 운영 방향에 있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보면 제작·다목적·대관·전용극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현재 다목적 극장이자 대관극장으로서의 위치에 있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패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 이번에 축제 중심으로 대관 신청을 받았는데, 앞으로 점점 민간단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작과 대관이 함께 건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주시면 좋겠다.

진행자: 극장별로 어느 정도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축제 중심,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은 신진단체 중심, 대학로예술극장은 기획 공연과 일반대관 중심으로 구성하려 한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 축제 중심으로 꾸려졌지만, 이 대관계약이 마무리되면 수시는 일반 단체들끼리의 장이 될 거다. 그렇다고 축제를 매년 만년 묵기로 끌고 간다는 건 아니다.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연과 관객, 티켓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매뉴얼을 사전에 정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축제의 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 단체들에 대한 기회를 점점 더 열어줄 것이다. 사실은 일반 단체들을 위한 고민을 더 깊게 하고 있다.

패널: 축제 일정이 잡혀있으면 다른 일정을 미리 구분해 대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축제 중심보다는 기회를 모두에게 열어놓는 것이 건강한 지원이라는 생각이다.

위원: 사실상 축제의 공적인 의미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축제나 조직에서 하는 국제적인 행사는 대개 많은 무용인들의 의견을 넣은 공적인 예술행사니 그 가치는 인정해줘야 한다. 축제를 제하고서도 대극장의 수시는 민간단체들에게 기회를 줄 거고, 무엇보다 소극장의 경우 젊은 차세대들에게 활짝 열어두었다. 심의 위원들이 아무래도 젊은 신인에게는 문호개방을 선뜻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기에, 극장 차원에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의 경우 신진단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거다.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일반단체와 협회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극장을 잘 쓸 수 있을지 절충방안을 찾아갈 것이다.

패널: 그동안에는 축제에 소속돼 공연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독립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축제는 그 안에서의 제한점이 많아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하지 못한다.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축제 공연은 한 극장이 아닌 여러 극장에서 해야 좋을 것 같다.

패널: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 찬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용계 협회들은 사실상 주축이 학교로 되어버린다. 그 모든 축제가 여기로 들어온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예술가로서는 아르코예술극장이 너무 권위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러운 걱정이 들기도 한다.

패널: 대소극장 작품은 안무를 구상할 때도 차별성이 있다. 언제일지 예측하기 힘든 수시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대극장이 수시대관으로 기회가 좁아지는 건 여전히 아쉽기만 하다. 그리고 전에는 공연 전 60일 이내 계약하면 됐는데 지금은 발표 후 한 달 내 계약하게끔 되었다. 지원금을 받아 계약해야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진행자: 대관계약이 늦어질수록 계약 포기가 많아지고, 취소 후에는 다른 단체가 들어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접수와 대관심의를 더 늦출 수는 없는 현실이고, 미리 하자니 일반단체들은 더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 많다. 현재 지원금 심의를 조금씩 앞당기고 있으니 향후 좋은 방향을 기대해보자.

패널: 포기 단체가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다. 무엇보다 민간단체들은 지원금의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니, 이 기간에 대한 절충이 꼭 필요하다.

패널: 대관이나 지원금에서 탈락되면 단체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어느 한쪽만을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예술위가 잘 해줘야 한다. 어찌됐든 모든 문제는 예술인과 관객, 예술위 세 가지가 상충되게 마련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예술적인 가치를 창출해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예술위가 앞장서 해주면 좋겠다.

진행자: 극장의 기획제작 공연에 대해 차세대 무용계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다.

패널: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자체 무용단이 있어 기획공연의 질이 나쁘지 않지만, 사전으로는 자체 단체 시스템은 자체하고 일반 단체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자체 무용단은 없지만 현장과의 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다.

좋은 기획공연을 위한 여러 안무가와 무용단 등과의 협력구조도 필요하다.

패널: 해외 극장들에 초청되어 교류하다보면 몇몇 극장들은 내게 ‘다음 버전’을 기대하며 묻곤 한다. 만약 극장과 극장 간의 교류로 기획공연을 제작 지원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다면 어떨까. 최근에는 축제보다 오히려 해외 극장 측에서의 관심이 더 많아지는 추세 같다.

패널: 기획공연의 형태도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외국에서도 무대 밖 공간을 활용한 장소 특정형(site-specific) 공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아르코예술극장도 백스테이지, 로비 등 무대 외적인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패널: 지난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한 적 있는데, 그때 고등학생 관객들을 대상으로 극장 시스템을 소개해주는 공연이 아주 인상 깊었다. 극장 스태프들은 어떻게 일하고 무대 설비들은 어떠한지, 또 안무가나 연출가, 무대감독의 역할들은 무엇인지 극장을 투어하며 공연도 보는 형태가 참 신선해 보였다. 학생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아르코예술극장도 전문예술단체 공연이 많은 것에 비해 이런 일반 학생들을 위한 공연은 부족해 보이는데, 극장을 경험하는 대상을 넓히는 차원에서 시각을 좀 더 열어봐도 좋을 것 같다.

패널: 공연 외에 사진이나 그림 등을 활용한 갤러리도 좋다. 지리적으로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대학로의 중심부에 있으니 잘만 활용하면 너무 좋다. 로비나 기타 공간들을 활용해 시민들이 극장을 찾는 기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어보자.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에 극장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공연으로만 승부를 보려 하니 텅 빈 극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시민들의 발길을 움직이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건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진행자: 조직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극장 체계가 여러 번 흔들렸던 게 사실이다. 극장장과 예술감독의 겸임, 예술감독제, 운영위원회 체제 등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거쳐보았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이다. 예술위 속에서의 공공극장이라는 위치, 대학로 역사 위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 계신 예술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패널: 현장과의 소통이 절실한 시점이니 만큼 극장도 예술감독제로의 변화가 필요

하다.

패널: 예술위 시스템에서 예술감독이라는 보직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궁금하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패널: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술위 시스템 안에서 극장을 운영하며 예술감독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가져가는 식으로.

패널: 예술감독이 존재해야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작품의 질도 높아진다. 그리고 대학로에는 연극 전용 소극장이 너무 많으니 아르코예술극장은 지금보다 더 무용 중심 극장이 되면 좋겠다.

패널: 예전의 ‘라이징스타’, ‘솔로리스트’가 없어진 이유가 궁금했고 아쉬웠다. 꾸준히 계속되었으면 했던 기획공연이었고, 실제로 당시 좋은 안무가들이 많이 배출됐었다.

패널: 지금은 신인을 배출할 수 있는 고정적인 무대가 거의 없어졌다. 다른 극장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다.

패널: 극장들이 1~2년 앞을 내다보고 기획과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패널: 예술감독제에 대한 부분은 적극 찬성이지만, 문제는 어느 분이 되느냐다. 독단적이 될 상황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극장 방향성에 대한 체계가 잡히고 예술적인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면 운영위원회와 예술감독 체제를 같이 끌고 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진행자: 부분적으로 기획성을 가지고 가는 체계라면, 베니스비엔날레처럼 커미셔너 선정위원회를 통해 커미셔너에게 익년도 정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패널: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어쨌든 책임성을 가진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패널: 그리고 예술위 안에서 직원 분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극장 직원 분들은 그대로이면 좋겠다. 예술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인데, 극장에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 있으면 우리들 입장에서라도 낯설고 친근함이 덜해진다.

패널: 제 경험상 아르코예술극장은 시설 지원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였다. 수중무대도 해보고 나무도 무대로 가져와볼 만큼 안무가의 상상력을 맘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셨다. 휠체어 무용가가 있을 때는 또 그에 맞게 비탈길이나 좌석 등 모든 걸 배려해주셨다. 원하는 미장센에 있어서는 가장 열려있는 좋은 극장이다. 이렇게 예술가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도 반갑고, 앞으로 많은 고민을 거쳐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길 바란다.

진행자: 아르코예술극장은 1981년 개관되어 곧 있으면 40주년이다. 초심을 찾아 예술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해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 중이다. 블랙

리스트 사건 이후 조직생태계를 바뀌어나가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당장 모든 걸 결정지을 순 없겠지만,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며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끌고나가려 한다. 오늘이 이야기의 시작이고, 앞으로도 늘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의견 개진을 많이 부탁드립니다.